

* 축산뉴스 (돼지) *

‡ 칠레산 돈육 다이옥신 검출, 전면 검역중단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세 번째 다이옥신이 검출되면서 결국 우려됐던 칠레산 전체가 검역중단 됐다. 이에 따라 검역중단이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입돼지고기 시장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림수산물부는 지난 8월 18일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국립수괴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6.2~8.3 피코그램(pg/g fat)의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허용기준인 2피코그램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건은 지난 7월 10일 2번째 다이옥신이 검출된 이후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출된 것으로 국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3번째로 검출돼 해당물량 11톤을 불합격 조치하고 칠레산 돼지고기 전체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했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농식품부의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한 잠정 검역중단조치에 대해 “지난 7월 3일부터 칠레의 6개 수출작업장 중 3개 작업장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됐고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규명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취해진 것으로 앞으로 오염경위 해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농진청, 돼지콜레라 예방 ‘먹는 백신’ 개발

돼지콜레라를 예방할 수 있는 ‘먹는 사료 백신’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은 사료작물인 ‘알팔파(alfalfa)’의 유전형질을 변환시켜 돼지가 이 작물을 먹으면 콜레라 항체가 생성돼 병을 예방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돼지콜레라는 인체 전염은 없지만 돼지가 걸리면 사망률이 90%에 이르는 치명적인 병으로 지금까지는 일일이 돼지에게 백신 주사를 맞춰야했다. 그러나 백신의 생산단가가 높고 병원성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높아 양돈농가에게 돼지콜레라 예방은 큰 숙제였다. 농업생명공학연구원 김종범 박사팀은 알팔파에 돼지콜레라 바이러스

의 피막단백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삽입해 알팔파에서 이 피막단백질이 생산되도록 했다. 이렇게 생산된 알팔파를 사료에 섞어 돼지에게 먹이면 피막단백질이 돼지콜레라의 항원 단백질 역할을 수행, 콜레라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항체가 만들어져 병이 예방됐다. 백신 알팔파 사료를 일주일에 이틀씩 4주 동안 먹인 돼지와 일반 사료를 먹인 돼지에게 각각 돼지콜레라 바이러스를 주사한 후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반 사료를 먹인 돼지는 바이러스 증식으로 폐사한 반면 백신 사료를 먹인 돼지는 발병이 억제됐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비록 이번에 개발된 알팔파가 유전형질변환(GM) 작물이기 때문에 야의 재배 실험을 거쳐 환경위해성을 검증 받아야 하지만 작물을 사람이 식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유전형질변환 작물을 사료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빠르면 3년 이내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사료의 상품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 양돈수급위, 돼지고기 부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양돈수급안정위원회가 축산발전기금 재원으로 마련된 ‘2008 돼지고기 부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 품목은 간, 지방, 콩팥 등 돼지고기 부산물이다. 2차 육가공품 및 정육, 스킨, 열처리가공품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지원금은 2008년 유통공사 지원단가의 50%를 적용하되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kg당 지원단가가 하향 조정된다. 지원대상은 지원 대상 품목의 올해 수출실적이 있는 자 또는 물품공급자이다. 지원예산액은 총 6천700만원이며 지원 시기는 총 3회로 2008년 8월(1~6월분)과 10월(7~9월분), 2009년 1월(10~12월분)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지원 월(8월, 10월, 1월)의 10일까지이다.

▶ 지원 절차 및 신청서 문의 : 농협중앙회(02-397-5714),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031-394-8147)